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高等學生의 傳統 孝意識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任 正 範

1997年 8月

濟州道 高等學生의 傳統 孝意識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任 正 範



任正範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 委員長 李 仁 弼 
審査 委員 金 恒 元 
審査 委員 朴 龍 炯 

〈抄錄〉

濟州道 高等學生의 傳統 孝意識

任 正 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 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는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효의식을 조사하여 제주도 효 교육 증진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뜻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전통 효에 대한 이론적 문헌 고찰과 제주 선인들의 효 사례를 짚어 보았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적인 반응 결과를 백분율로 파악하고 5개의 배경 변인별로 χ^2 검증을 통해 유의도를 밝혀 보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나타난 전통적인 8가지 효 요소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버이에게 거스리지 않고 복종하여 마음으로 극진히 잘 섬기는 順從의 효의식에서는 남·여 모두가 부모님의 명령에는 그 事理如何를 막론하고 무조건 모든 것에 복종하기보다는 일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순종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다치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保身의 효의식을 易地思之 입장에서 부모님 뇌사시 장기기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고려해 보겠다.'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기증 하겠다.'와 '무조건 기증하겠다.'가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시대가 바뀌면서 현실 상황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거소를 편안케 해 드리고, 좋은 음식으로 어버이의 수중을 잘 받들어 모시는 奉養의 효의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시와 결혼 후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효에 대해 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신의 자식이 동시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자식보다 우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아버지의 不義나 不合理的 일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리고, 고치도록 諫言하는 忠諫의 효의식에 대한 물음에는 70% 이상이 부모님 잘못을 고치도록 직언하겠다고 하고 있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자식이 감히 부모에게 직언하는 것은 불효가 아닐까하고 생각하던 때와는 다르게 전통 효의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아버이 덕행과 의도하는 바 유지를 잘 받들어 발전시켜 나가는 養志의 효의식 조사에서는 56%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전통 사회와 같이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효의식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恭敬의 효의식은 낮은 편으로 자기 자신이 좋은 직장을 우선(61%)으로 하고, 부모님 모시(17%)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음인데, 과거에는 입신양명에 대한 효보다 우리 전통 공경의 효를 더 중시했음에 비교할 때 많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아버이가 질환이 나면 모든일을 폐하고 탕약을 해드리고, 지성으로 극진히 간호하는 養護의 효의식은 남·여 모두 80%이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물질주의 사상이 들어옴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식이 상실되어 간다고 기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덟째, 아버이가 돌아가신 후 애절한 마음으로 지난날 하시던 일을 회상하고, 아버이의 덕업을 자손에게 가르치며 엄숙히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死後의 효의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묘지도 좋은 곳을 찾겠다고 했고, 제사도 풍성하게 지내겠다고 했으나, 가정 의례 준칙에 따라 제사를 모시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명절 연휴때 관광지에서 차례 지내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 전통효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아울러 별초 및 성묘에 대한 효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전통적인 효의식을 8가지 효 요소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분석 종합해보면, 保身, 奉養, 忠諫, 養護, 死後의 5가지 효의식은 높은 편이나, 順從, 養志, 恭敬의 3가지 효의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전통 효의식은 아직까지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교육적인 의미에서 정리해 보면, 현재의 학생들은 효에 대한 보수적 관념에서 개방적 관념으로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또한 건전한 사고 방식과 전통적인 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시대 사조의 변천으로 인하여 생기는 효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효를 강요하기 보다는 전통 윤리를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적 합리적으로 계승하려는 각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의 효 교육이다. 오늘날 가정이 살아 있는 효 교육의 장이 되려면, 효도를 실천하며 가르치는 부모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가정을 대화의 장으로 조성하는 일이며, 신의 있고 성실한 부모상을 언행을 통해 보여주는 일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효 교육이다. 먼저 지식 위주, 입시 중심의 교육 풍조에서 인간중심 교육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표준적 습성을 형성시켜 주는 일이다. 그리고 효 주제를 전 교과에 고루 반영하고 내용을 강화하되 과외 씨클활동 및 행사 교육에 있어서도 효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

셋째, 사회에서의 효 교육이다. 사회의 모든 환경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인들 모두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사회는 부모 대행의 교육기능이어야 하고, 성인 스스로가 모든 청소년들을 내자식으로 생각하고 효 교육에 앞장서야 하겠다. 특히 매스컴은 건전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적극 계도해 나가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지식 교육보다는 인성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 인성 교육을 위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영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효 요소와 인식이 부족한 효 요소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잘 조화된 교육만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孝의 概念	4
2. 傳統 孝의 內容	5
3. 濟州 先人들의 孝 事例	11
III. 研究 方法	20
1. 調查道具	20
2. 標集	21
3. 資料處理	22
IV. 結果와 論議	23
1. 傳統的 孝에 대한 생각	23
2. 傳統的 孝 意識에 대한 背景 變人別 反應 結果	29
V. 結論: 要約과 提言	42
參考文獻	46
英文抄錄	47
附 錄	51



표 목 차

〈표 1〉 제주 선인들의 효 사례	13
〈표 2〉 조사 도구의 구성 내용 및 문항 수	20
〈표 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21
〈표 4〉 일반적 배경	22
〈표 5〉 부모님이 정해진 결혼 상대자 수용에 대한 효의식	23
〈표 6〉 휴일에 부모님을 도와 드리는 정도의 효의식	24
〈표 7〉 부모님 뇌사시 장기 기증에 대한 효의식	24
〈표 8〉 전통적 봉양의 효의식	25
〈표 9〉 위급시 부모와 자식중 선택 정도의 효의식	25
〈표 10〉 부모님 잘못에 대하여 직언 정도에 대한 효의식	26
〈표 11〉 부모님이 정해진 장래 직업 수용에 대한 효의식	26
〈표 12〉 원거리 직장에 따른 부모님 모시는 정도의 효의식	27
〈표 13〉 부모님 병환시 간호 정도에 대한 효의식	27
〈표 14〉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묘지 계획에 대한 효의식	28
〈표 15〉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사에 대한 효의식	28
〈표 16〉 명절 연휴때 관광지에서 차례 지내는데 대한 효의식	28
〈표 17〉 별초 및 성묘에 대한 효의식	28
〈표 18〉 부모님이 정해진 결혼 상대자 수용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29
〈표 19〉 휴일에 부모님을 도와 드리는 정도의 변인별 효의식	30
〈표 20〉 부모님 뇌사시 장기 기증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31
〈표 21〉 경제적 빈곤시 부모님 부양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32
〈표 22〉 부모님과 자식 중 선택 비중의 변인별 효의식	32
〈표 23〉 결혼 후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 있어 수용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33
〈표 24〉 위급시 부모와 자식중 선택 정도의 변인별 효의식	34
〈표 25〉 부모님 잘못에 대하여 직언 정도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35
〈표 26〉 부모님이 정해진 장래 직업 수용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36
〈표 27〉 원거리 직장에 따른 부모님 모시는 정도의 변인별 효의식	37
〈표 28〉 부모님 병환시 간호 정도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38
〈표 29〉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묘지 계획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39
〈표 30〉 부모님 돌아가신 후 제사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40
〈표 31〉 명절 연휴때 관광지에서 차례 지내는데 대한 변인별 효의식	40
〈표 32〉 별초 및 성묘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41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효란 구체적인 實踐主體의 측면에서 보면,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영원히 지탱해 주는 기본 질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는 가족에서 친족으로, 친족에서 민족으로 나아가서는 전인류적인 인간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基底的인 것이기 때문에, 父子之間을 규율하는 효야말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지탱하고 유지시켜 주는 기초요,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와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한 후, 그 사랑과 존경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함이다. 개인과 가족은 똑같이 중요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인간성의 발전은 바로 가족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들로 하여금 참된 자아를 발전시키고 실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윤리 사상의 핵심인 효에 바탕을 둔 도덕적 전통을 높이려는 교육을 행해왔다. “효는 만행의 뿌리이다.”, “효는 가정의 평화와 인류의 길잡이다.”, “효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¹⁾란 말들이 바로 효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가치 교육의 예로서, 그만큼 우리 나라는 조상 전래의 전통 유산 중 예의가 바르고 부모에게 孝道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겨온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효를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이라 보고, 孝誠을 보면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곤 했다. 삼국 시대부터 학교 교육에서 『孝經』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하였고, 불교 경전 속에서도 효를 강조한 일화가 점철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효란 장구한 시간동안 서민간의 일상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효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효의 실천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효 속에는 변치 않고 추구해야 할 전통적인 근본 개념이 있기에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모색은 어느 한 사람으로만 해결될 문

1) 장백일, “군인의 뿌리는 孝”, 『국방일보(일일칼럼1152)』, 1996년 6월5일, p. 3.

제가 아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인간성 교육의 강조와 함께 효에 대한 관심은 날로 더해가면서도 효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전통 사상을 복원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단체에서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편이며, 오늘날의 학교 교육 역시 올바른 인격 형성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에다, 신세대라는 자유로운 개성의 속성을 지닌 세대의 행위가 시대의 요청인 양 당연히 합리화되어 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실로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과의 상담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갈등의 요인은 가정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정은 인간 교육의 최초의 場이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하며, 적응하는 방법과 습관을 익힌다. 가족 구성원과의 인간 관계를 통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가족문화 속에서 인격의 형성과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받아들여진 서구의 물질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에 잠식해 들어와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이 공유하는 뚜렷한 가정 윤리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동양의 고유한 유교적 가정관도 아니고, 서양인의 생활 속에 자리잡은 기독교의 가정관도 아닌 과도기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의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 조직 및 기관의 확대는 가정 교육의 기능을 사회집단이나 기관에 이관시킴으로써 가정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현상은 가정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여 근래에는 부모를 살해하는 등의 패륜적인 인간성 상실의 사건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사건들이 횡행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땅에 떨어진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 사상의 중핵인 가정에서의 효사상의 재구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선행 연구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제주도는 효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편이다. 본 도는 다른 지방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터라 효에 대한 관념도 다른 지방에 비해 다를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전통 효의식을 조사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효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전통 효의식을 파악하여 효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2.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조사방법에 있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효의식을 조사하는데 설문지법이 갖는 한계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이 제주도내 고등학교 계열별 소재 분포도가 제주시는 인문고 읍(면)은 실업고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실업고는 농업, 공업, 상업, 종합고 등으로 나누어 있어 지역별로 효의식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孝의 概念

효는 유교의 교설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는, 가정 내부의 윤리이다. 효는 그 子源에서 '老'와 '子'를 합해서 만든 글자로써, '子'가 '老'를 등에 업은 字形이 '孝'이다. 즉 효는 아버지를 지성으로 섬긴다는 뜻으로²⁾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로 부터 성립됨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와 관계는 곧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최초로 형성하는 관계이며 그 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가 바로 효이다.

이렇게 효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며 가정 윤리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선택하여 관계지어지는 것이 아닌 운명적이며, 부모와 자식간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과 존경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효는 노동집약적인 농업이 생산 활동의 주류를 이루었던 가부장적인 대가족의 혈연이 중심이 된 가족 관계에서 근원이 되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하나인 개인은 효를 중심 사상으로 하는 조상 숭배에서 나타났다.

조상 숭배와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의 효는 일찍부터 신라의 국학, 고구려의 경당,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향교 및 성균관에서 효를 역설한 효경이 논어와 더불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³⁾

따라서, 효는 한국의 전통적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윤리 준거의 척도가 되었던 것이다.

2) 중앙일보사(1990), "VIP", 『중앙 대백과』, p. 2115.

김유혁(1977), "효의본질", 『충효사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p. 1.

3) 김성근(1977), 『부산시내초·중등학생의 효의식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p. 15.

2. 傳統 孝의 內容

효는 부모에 관한 것, 집에 관한 것, 타인에 관한 것 그리고 자식의 일체 행동에 관한 것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모에 관한 것으로 이병호의 부모섬기는 10가지(居·致·敬·養·樂·憂·喪·哀·祭·嚴) 태도와 강석봉의 효 13편을 종합한 선행 연구물중에서 현실적으로 빈도수가 가장 많은 부모 섬기는 효 요소 8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부모를 섬기는 효 요소는 順從·保身·奉養·恭敬·忠諫·養志·養護·死後(喪·祭禮)의 孝⁴⁾의 8가지가 있다.

1) 順從의 孝

아버이에게 고분고분하여 거스르지 않고 복종하여 마음으로 극진히 잘 섬기는 효를 말한다.

『擊蒙要訣』에 보면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한가지 일이나마 한 가지 행동이라도 감히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아버지에게 말씀 드린 뒤에야 행하는 것이다.

만일에 의당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아버지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때면 반드시 그 사유를 여쭙어서 승낙을 받은 후에야 행하는 것이다. 그래도 끝내 아버지가 승낙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역시 제 마음대로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⁵⁾고 하였다.

『孝經』에 보면 “공자가 이르기를 부모가 날 낳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4) 강석봉(1994), 「전통적 효요소에 의한 효의식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p. 24~29.

이병호(1996), 『도덕전서』, 성일문화사, p. 114.

5) 양희철(1993), 「효사상의 현대적의의와 교육의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p. 11에서 재인용.

“父母之恩 爲如何哉 豈敢自其身 以不盡孝 於父母 乎人能恒存此心 則自有向親之誠矣凡事父母者 一事一行”, 『擊蒙要訣』·〈事親章〉.

있으며 임금님이 다스리고 가르쳐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패덕이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패례라 한다.”⁶⁾고 하였다.

2) 保身の 孝

자신의 몸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아버지의 걱정을 적게 해드리는 효를 말한다.

『孝經』에서 공자는 “우리의 신체와 피부는 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⁷⁾라고 하였다.

『擊蒙要訣』에서 율곡은 “天下의 모든 물건 중에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만일에 남에게서 재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재물의 많고 적은 것이나 그 재물의 소중한 하잘 것 없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에게 이 몸을 주셨으니 天下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다고 하여도 이 몸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막중한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감히 내가 나대로 몸을 가졌다고 하여 부모에게 孝誠을 다 하지 않으리요. 모든 사람들이 능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저절로 부모에게 향하는 정성이 있게 될 것이다.”⁸⁾고 하였다.

『論語』에서 孟武伯이 효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공자는 “부모는 오로지 자식의 질병만 걱정하신다”⁹⁾고 하였다.

6) 黃秉國(1990), 『孝經』, 惠園出版社, p. 94.

“子曰 不愛其親而愛 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悖禮”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7) 윤성범(1994), 『孝란 무엇인가』, 삼일서적, p. 50.

“身體髮膚 受之父母不敢毀傷 孝之始也”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8) 金星元(1986), 『新完譯 擊蒙要訣』, 明文堂, p. 63.

“天下之物 莫貴於吾身 而吾身 乃父母之 所遺也 今有遺 人以財物者 則隨其物之 多少輕重 而感恩之意爲之深淺焉 父母遺我以身而舉天下之物 無以易此身矣 父母 之恩爲如何哉 豈敢自其身 以不盡孝於父母乎 人能恒存此心 則自有向親之誠矣”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3) 奉養의 孝

거소를 편안하게 해 드리고 항상 좋은 음식으로 아버지의 侍中을 잘 받들어 모시는 효를 말한다.

『孟子』에 보면 “게을러서, 술과 도박을 좋아해서, 재물을 탐하고 처자식만 편애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不孝”¹⁰⁾라고 하였다.

『禮記』에 보면 “자식이 된 사람의 도리는 거울에 따듯하게 해 드리고, 저녁에는 잠자리를 펴 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나간다고 여쭙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 드려야 한다. 노는 곳은 일정하여야 하고, 익히는 것도 일정해야 하며, 평소 말할 때 자신이 늙었다고 하지 않는다”¹¹⁾고 하였다.

『小學』에 보면 “증자는 효자가 늙은 부모를 봉양할 때는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그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며, 그의 잠자리와 거처를 편안하게 하며 음식으로써 충성스럽게 봉양한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아들도 사랑하고 부모가 존경하는 것은 아들도 존경한다. 개와 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야 말할 것이 있느냐?”¹²⁾라고 하였다.

『孝行錄』에 보면 “곽거라는 효자가 늙은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 세 살 난 어

9) 金得樞(1984), 『한국고대 도덕의 연구』, 大地文化社, p. 101.

“子曰 父母唯其疾之憂”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10) 차주환(1994), 『孟子』, 범우사, p. 233.

“惰其四肢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好飲酒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私妻子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以爲父母之養 四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之養 一不孝也”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11) 金瑩洙(1984), 『禮記』, 韓國教育出版公社, pp. 22~23.

“凡爲人子 之禮 冬溫而夏清 昏定而晨省 在醜夷不爭. 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 所遊 必有常 所習 必有業 恒言 不稱老”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12) 朴炳大(1994), 『小學』, 一信書籍出版社, p. 85.

“曾子曰 孝子之 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樂其耳目安 其寢處 以其飲食 忠養之 是故 父母之所愛 赤愛之父母之所敬 赤敬之 至於犬馬盡然 而況於人乎”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린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다는 이야기, 병을 앓던 어머니에게 겨울날 죽순을 구해 드려 병을 낫게 하였다는 효자 이야기, 劉殷을 위해 엄동에 미나리가 돌아났다는 이야기, 중병을 앓던 시어머니에게 자기 팔의 살을 베어 약과 함께 먹여 낫게 했다”¹³⁾는 이야기 등이 있다.

4) 恭敬의 孝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효를 말한다.

『孝經』에서 공자는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집에 있으면 자기의 공경을 극진히 다한다”¹⁴⁾고 하였다.

『孝經』에 보면 “사람의 행위 가운데 효보다 큰 것이 없고, 효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는 그를 하늘 옆에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¹⁵⁾고 하였다.

『詩語』에서 공자는 공경하는 효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子游가 효를 물었을 때 “지금의 효라는 것은 봉양하는 줄만 아나 개나 말도 다 기름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느냐?”¹⁶⁾고 대답하였다.

5) 忠諫의 孝

아버이의 不義나 不合理的 일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리고 잘못된 행위는 고치도록 諫하는 효를 말한다.

13) 李德熙(1995), 『孝行錄』, 譜典出版社, pp. 13~35.

14) 黃秉國(1990), 앞의 책, p. 99.

“子白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養則致其樂疾則致其憂 哀則致其哀 祭則致其嚴五者備矣然後 能事其親”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15) 위의 책, p. 83.

“人之行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於配天”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16) 徐三英(1977), “忠孝”, 『정신문화 참고』, 육군인쇄공창, p. 86.

“子游問孝子曰 今之孝者是謂能養 至於犬馬皆能有養 不敬何別乎”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擊蒙要訣』에 보면 “부모의 뜻이 만약에 義理에 害로운 것이 아니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순순히 行하며 다소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에 義理를 해치는 것이라면 화평하고 부드러운 기색과 말소리로 거듭 諫하여서 반드시 들으시도록 해야 한다.”¹⁷⁾고 하였다.

『孝經』에서 增子が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좇기만 하면 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 무슨 말이냐? 옛날에 天子는 다투어 諫하는 신하 일곱을 두면 비록 자신이 道가 없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았고, 諸侯는 다투어 諫하는 신하 다섯만 두면 비록 자신이 道가 없더라도 나라를 잃지 않았으며, 大夫는 다투어 諫하는 신하 셋만 두면 비록 자신이 道가 없더라도 그 집안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선비에게 다투어 諫하는 벗이 있으면 그 몸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에게 다투어 諫하는 자식이 있다면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義롭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자식으로서 다투어 諫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명령만 좇는다 하여 어찌 효를 행한다 하겠는가?”¹⁸⁾라고 하였다.

『論語』에서 공자는 “부모를 섬기되 부모의 잘못을 만나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諫해야 한다.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경하여야지 부모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며,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원망해서는 안된다.”¹⁹⁾고 하였다.

6) 養志의 孝

아버지의 德行과 의도하는 바 그리고 遺志를 잘받들어 발전시켜 나가는 효를 말한다.

17) 金星元(1986), 앞의 책, p. 70.

“父母之志 若非害於義理則當先意承順 毫忽不可違 若其害理者則和氣怡色 柔聲以諫 反覆開陳 必期於聽從”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18) 黃秉國(1990), 앞의 책, p. 136.

“曾子曰 若夫慈毀敬 安親揚名 參聞命矣敢問 子從父之 命可謂孝乎”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19) 李民樹(1985), 『論語解說』, 一潮閣, p. 62.

“子曰 事父母 幾諫 見志 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擊蒙要訣』에서 율곡은 “날마다 하는 일이나 또 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한 뒤에야 효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만일에 자신의 一身 가지기를 삼가지 않고 말을 함에 있어서도 법도가 없이 그저 웃고 노닐면서 세월을 보내는 者는 모두가 그 부모를 잊어버리고 한 소행이다.”²⁰⁾고 하였다.

7) 養護의 孝

아버지가 疾患이 나면 모든 일을 폐하고 탕약을 해드리고 지성으로 극진히 간호하는 效를 말한다.

『擊蒙要訣』에 보면 “부모가 疾患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조심을 하고 다른 일들을 모두 내버려 두고 오직 의원에게 묻고 약을 지어다가 쓰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이리하여 질환이 회복될 것 같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본래에 하던 일을 보기 시작한다.”²¹⁾고 하였다.

8) 死後(喪·祭禮)의 孝

애절한 마음으로 지난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회상하고, 아버지의 덕업을 자손에게 가르치며 엄숙히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效를 말한다.

『孝經』에 보면 “효자가 부모 喪을 당하면 哭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예도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말을 번잡스럽게 하지 않으며, 가령 좋은 옷을 입는다 해도 마음이 便安치 않으며 음악 소리를 들어도 전과 같이 즐겁지 않으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에 달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은 세상만사에 하나도 즐거움이 없는 것은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哀悼의 情에서 우러나는 것이다.”²²⁾고 하였다.

20) 金星元(1986), 앞의 책, p. 72.

“日用之間一毫之頃 不志父母然後 乃名爲孝 彼持身謹 出言無章 嬉戲度日者 皆是忘父母者也”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21) 위의 책, p. 71.

“父母有疾 心憂色沮 捨置他事 只以問醫 劑藥爲務 疾止復初”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22) 黃秉國(1990), 앞의 책, p. 151.

『擊蒙要訣』에 보면 “喪·祭禮의 禮는 자식된 자로서 가장 정성을 다할 일이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는 다시는 봉양할 수 없다. 그러므로 喪중에 그 예를 다하지 못하고 또 祭祀 때 그 정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다하도록 아픈 마음을 어디에다가 풀 것이며, 또 어느 때에 풀 것이냐? 그렇다면 사람의 자식된 情理가 어떻게 하리요?”²³⁾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전통적 효의 중핵적 내용은 자신을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는 과정의 신체 보전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순종하며, 돌아가신 후라도 정성을 다하여 예를 극진히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임을 알 수 있다.

3. 濟州 先人들의 孝 事例

일찌기 탐라 선인들은 가혹한 자연과 역사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오면서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삼무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시켜 왔다. 그러한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제주인 특유의 삶 속에서 배양되고 생성된 정신과 사상 그리고 고유의 미풍양속에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유배온 선비들에 의한 유교의 가르침이 훌륭한 전통적 효의식을 꽃피웠다고 하겠다.

고려말 충신이었던 節臣 金萬希선생은 제주도로 유배 당하여 제주 지방 자체들의 교육에 힘을 쏟았는데 遺稿 襄海原辭錄에 충과 효는 모든 신하가 마땅히 힘써야함을 강조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가 중요함을 가르쳤다.²⁴⁾

또한 그 후 조선 후기에 제주도로 유배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왕족과 관리 뿐만 아니라 內官, 內局醫 심지어는 과거에서 부정이 적발된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 유배인들은 문신출신의 학자로 謫居하는 동안 제주 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유학위주의 교학 활동 속에는 효를 으뜸으로 하는 서울의 실학 학풍을 제주도에 그

“子曰 孝子之喪親也 哭不依 禮亡容 言不文 服美不安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哀戚之情也”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23) 金星元(1986), 앞의 책, p. 101.

“喪祭二禮 最是入子 致誠處也 已沒之親 不可追養 若非喪盡其禮 祭盡其誠 則終天之痛 無事可萬……”는 주 해설 내용의 原文임.

24) 북제주군 공보실 (1982), 『내고장 전통문화』, 일신옵셋인쇄사, pp. 27~28.

대로 전수해 주었다.²⁵⁾

따라서 삼무정신의 첫번째인 盜無정신은 훌륭한 선비의 후예임을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승조사상과 선비가질이 강하여 조상을 욕되게 할 수 없게 되었고 조상숭배하는 정신이 남달리 지극하고 족보에 대한 관심과 선묘를 돌아보는 성의가 대단한 전통적 효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많은 효자들이 나오게 되었다.²⁶⁾ 여기서는 이처럼 특수한 여건 속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만은 소홀함이 없었던 효행자들의 사례를 정리해 보겠다.



25) 제주도 교육연구원(1996), 『향토사 교육자료95-12』, 태명인쇄사, p. 293.

26) 김정배(1986), 『삼무정신 지도요소 추출 및 교과관련지도』, 『삼무정신 교육 자료집』, 제주도 교육연구원, pp. 25~30.

〈표 1〉 제주 선인들의 효 사례

연번	효행자	효행 내용	소재지 (보상)
1	강경기 (康景琪)	어려서부터 효행이 뛰어나 부모를 받드는데 몸소 장작을 하여 오고 고기를 닦으며 가난한 속에서도 溫淸之節과 甘旨之供을 권하는 일이 없었다. 양부의 喪을 당하자 泣血痛哭하며 삼년을 하루같이 다하였다.	정의 고을 (완문)
2	강봉식 (康奉植)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喪을 당하자 哭泣之哀하고 祭奠之禮를 어김없이 했고 자라서 나중에는 三年之祭를 받들었다. 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극진히 효도하고 돌아가서서는 葬祭를 하나도 어김없이 하였다.	정의 고을 (완문)
3	강세억 (康世億)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哀毀之祭와 省掃之禮가 어긋남이 없었다. 자라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봉양함에 나무를 베고 고기를 잡아 언제나 따뜻하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다.	정의 고을 (포양)
4	강수철 (康秀哲)	천성이 至孝했다. 부모를 일찍 여의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기절하기도 하였는데 할아버지가 임종하게 되자 음식을 전폐하고 할아버지를 따라 죽고자 하니 부인 오씨가 옛 사람의 居喪之道를 말하여 위로하고 初終喪祭를 못 사람에게 벗어나게 하였다.	정의 고을 (완문)
5	강여신 (姜汝信)	아버지가 병이나자 극진히 간호하며 그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했다. 喪을 당해 朔奠. 節祀때는 반드시 목욕재계하여 묘에 가서 哭奠을 행하였다.	애월읍고내리 (정려)
6	강운 (康運)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어머니 섬기는데 아버지와 같이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묘역에 합장하여, 廬幕을 짓고 삼년상을 追服하며 朝夕으로 哭奠하였는데 初喪制와 똑같이 하였다.	표선면성읍리 (정려. 碑) (정조4.1780)
7	강인홍 (姜仁弘)	두 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에 의하여 자랐다. 할아버지를 봉양하는데 溫淸之節과 甘旨之供의 정성을 다했다.	대정읍영락리 (포창. 碑) (1963)
8	강항숙 (康恒淑)	평소 천성이 純孝했으며, 늙은 아버지가 병이 나자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하고 위독하자 指血로써 효험이 있게 하였다. 돌아가시자 3년을 守墓하면서 스스로 흙과 돌을 운반하며 사시절 쉬지 않고 축장하여 축마가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의 고을 (정표)
9	고달인 (高達仁)	9세 나이에 하늘이 주신 타고난 良能이라 할 정도로 아버이를 사랑했다. 扇枕之誠을 다하였으며, 아버지의 목숨이 실오라기 같았을 때 指血의 한모금으로 회복시켜 연명하게 하였다.	우도 (완문) (1869)
10	고대숙 (高大淑)	아버이 섬기기를 극진히 하였다. 일기 어려운 것이라도 백방으로 구하여 봉양하였다.	제주목 (천거)

11	고득종 (高得宗)	생은 때 부친의 喪을 당하자 묘소 곁에 廬幕을 짓고 처음 으로 3년의 服制를 행하였다.	제주목 (정표) (태종13, 1413)
12	고명길 (高明吉)	친성이 純孝했으며, 80의 늙은 어머니가 돌림병을 얻어서 기절하자 약을 달여드리고 똥을 맛보며 병세를 가늠 했다. 또 위독하게 되자 斷指하여 수혈하자 3년을 더 살았다.	제주목 (정표)
13	고명득 (高明得)	가난한 처지에 아버지는 맹인이고 어머니는 다리병으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구걸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했고 백방으로 의원과 약을 구하여 시중했다. 매나 솔개가 참새를 잡는 것처럼 용맹한 의지가 있었다하여 친거 하였다.	제주목 (정표, 통정 대부 제수)
14	고명학 (高鳴鶴)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 정조 1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 현승이 되었으나 아버지가 늙었다 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밭갈고 사냥하며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했다. 1814년에는 掌劄을 제수하였으나 아버지가 늙었다 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대정 현감에 제수하였으나 親喪 중이라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정의 고을 (정조18, 1794)
15	고여송 (高汝松)	세 살때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된 아버지와 살았는데 열살 부터는 산에 가 나무를 하여오고 품팔이를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았다. 아버지가 위급하자 斷指 수혈하여 연명하게 하였다.	제주목 (정표)
16	고운문 (高允文)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정성을 다 하였다. 어머니가 성질이 조금한 까닭에 노여운 매를 맞으면 서도 피하라고 하니까 노여움이 한창일 때 달아나는 것은 도 리에 어긋나고 노여움을 더하게 된다하여 피하지 않았다. 종신토록 아내를 얻지 않았는데 이유는 아내를 맞이하여 어 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소 뜻을 받드는 것만 같지 못 하다 하여 끝내 독신으로 지냈다.	한경면 두모리 (정표, 碑) (순조14, 1814)
17	고재문 (高載文)	성품이 眞孝하여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하였 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보면 敦睦하고 愛恤하여 흉년을 당 하면 육지에서 쌀을 사다가 나누어 주니 효와 義가 겸전한 사람이었다.	정의 고을 (천거)
18	고찬원 (高贊元)	正兵으로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섬기는데 효성 을 다하였다. 立番하게 되면 어머니가 불편하므로 업어서 성안에 오고 退番할 때도 업어서 마을로 돌아간 뒤 항시 어 머니 구미에 맞는 음식을 여쭙어 봉양하였다.	애월읍 고성리 (정표) (숙종25, 1699)
19	고한원 (高漢元)	아버지가 늙었으나 가난하여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아버 지가 늙자 업고서 行乞하며 맛있는 음식을 드렸다. 한 겨 울 추울 때는 홀로 돌다가 비록 밤중이라도 품고 돌아와서 때를 놓치는 일이 없었다.	제주시 도남동 (정표) (순조33, 1833)
20	고한철 (高漢喆)	修身齊家の 도를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의 오랜 병으로 침식을 잊고 극진히 간호했으나 돌아가시게 되자 아 침저녁으로 대신 죽기를 빌었으며, 喪을 당하자 부등켜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 돌아가신 후에는 효례를 다하였다.	한경면 신창리 (정표, 碑) (철종13, 1862)

21	김광숙 (金光淑)	아버지가 남의 모함으로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평생을 분통히 여겨 남과 웃으며 말하는 일이 없었고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다. 순조 20년에 신문고를 올려서 그恨을 풀었다. 어머니가 병으로 늙자 2년동안 옷을 벗지 못한채 간호하고 똥맛을 보며 하늘에 축원하고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자 2일간 소생 하였다.	제주목 (정표) (철종11. 1860)
22	김광호 (金光浩)	어머니가 병으로 늙자 백방으로 약을 구해 치료 했으나, 효험이 없어 운명하려하자 왼손가락을 잘라 수혈하니 소생 하였다.	(정표) (철종11.860)
23	김두현 (金斗鉉)	천성이 純粹하여 아버이를 섬기는데 정성으로 定省之節과 甘旨之供을 다함이 못 사람보다 뛰어났고 문하생을 훈계하는데 德으로써 가르쳤다.	한림읍수원리 (포창.완문.碑) (1940)
24	김명운 (金明運)	가난하였으나 아버이를 섬기는데 효성을 다했다. 그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斷指 수혈하여 소생시켰다.	제주목 (정표)
25	김명집 (金明集)	아버지의 병이 심하여 목숨이 끊어지게 되자 왼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자 소생하여 연명하였다.	한림읍 귀덕리 (정표.碑) (헌종7. 1841)
26	김 비 (金庇)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여막을 지어 수분하고 몸소 糞과 돌을 지어다가 분묘를 꾸몄다. 大祥 禫祭의 제도도 가례에 준하여 실시 하였다.	(정표) (세종13.1431)
27	김순구 (金淳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어머니를 섬기는데 至孝로 溫清之奉과 定省之禮가 지극하였다.	삼도리 (완문) (순조22. 1822)
28	김 칭 (金秤)	濟州牧에 근무 하였는데 어머니 머리에 종기가 나 기절하자 곧 갓을 벗고 맨발로 50여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자기 종아리를 베어 피를 뽑아 술에 섞어 드리니 다시 소생하여 20년을 더 봉양하였다.	구좌읍 김녕리 (정려. 碑) (성종18. 1487)
29	김필환 (金弼煥)	천성이 仁厚하고 아버이를 섬기는데 至孝하며 어려서 부터 慈濟하고 承上撫下하니 協和하지 않음이 없고, 律身齊家하니 공자나 맹자 같다고 할 정도였다.	정의현 (완문)
30	김현검 (金賢儉)	천성이 독실하여 팔십의 노모를 봉양하는데 병으로 오래 늙게 되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救護하고 스스로 漁樵하여 甘旨之供을 계속하니 주방에 쉼하는 날이 없었다.	(완문)
31	김효순 (金孝順)	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린 나이에도 哀毀之禮를 극진히 치르고 어머니가 병으로 늙자 침식을 잊고 간호에 정성을 다하였으나 점차 운명하기에 이르니 斷指 수혈하여 소생시켰다.	한림읍 수원리 (정표.碑) (고종32. 1895)
32	김흥조 (金興祚)	천성이 어질고 착하여 어려서부터 아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 하였다.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여 소생하였다.	한림읍 대림리 (정표. 碑) (철종11. 1860)
33	문달민 (文達敏)	언행이 謹厚하고 아버이를 섬기기에 정성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반드시 드리고 따뜻한 정이 께함이 없었다. 아버지가 위독하자 指血을 하여 죽음에서 소생하게 하였다.	대정읍 무릉리 (정표. 碑) (철종2. 1851)

34	문방귀 (文邦貴)	부친상을 당하자 3년을 守墳하며 喪制는 家禮를 지키었으므로 제주에 이기풍이 수립되어 守墳자가 3인이요, 3년 상을 행한자가 10인이나 되었다.	제주목 (정표) (태종13. 1413)
35	문정복 (文廷福)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효도를 극진히 다하였다. 어머니가 병이 나서 위급하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수명을 연장하게 하였다.	무릉리 인향동 (復戶.碑) (철종 때)
36	박계곤 (朴繼崑)	평소 아버이를 섬기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다. 제주에 하급 관리로 서울로 가다 배가 부서져 무인섬에서 널조각에 이별의 글을 쓰고 불이니 9백리나 되는 집 문앞에 닿아 아버지가 보고 배를 내어 가서 구해왔다.	애월읍 신엄리 (정려.정문) (정조18. 1794)
37	박명래 (朴明來)	아버지가 병이 나서 꿩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하늘에 빌어서 꿩고기를 기필고 얻어다 아버지께 올렸고 어머니가 중병으로 사경에 이르자 斷指수혈하여 목숨을 연장시켰다.	추자면 영흥리 (표. 碑)
38	박명복 (朴明福)	21세 되는 해에 아버지가 사경에 이르자 斷指수혈하여 한달여를 연명하다 돌아갔다. 59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哀毀之禮로 初終葬祭를 지냈다.	구좌읍 김녕리 (碑) (1955)
39	부천겸 (夫千謙)	아버지가 병이나자 침식을 잊고 간호하며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하였다. 아우 덕겸이 풍병으로 질름거리려 청혼이 아무도 없자 백방으로 힘을 써서 짝을 찾아줘 자녀를 갖도록 하여 어머니가 낙으로 삼게 하였다.	영평리 (정표) (순조22. 1822)
40	신치득 (愼致得)	생모를 일찍 여의고 계모에게 양육 되었다. 계모에게 세아들이 있었으나 반드시 신치득이가 봉양했다. 밖에서 맛있는 것을 얻으면 품에 품어 가져와 계모에게 드리고 계모가 병이나자 계모의 아픔을 쓰다듬으며, 가려움을 긁어서 놓고 일으켜 부축하기를 10년을 하루 같이 하였다. 묘자리 禁止言爭은 安葬之道가 아니다 하여 다른 곳으로 안장하였다.	제주시 도련동 (정표) (순조22.1829)
41	안경능 (安景能)	가난하였으나 漁樵로 양친을 봉양하여 溫清之節과 甘旨之供을 다 하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禮로써 葬祭하고 風雪속에서도 守墓하였다. 집안에 운이 불행하여 처자가 같이 죽었다. 홀애비로 살면서도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했으며 병이 나자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하여 연명하였다.	정의현 (완문)
42	양 흡 (梁 翕)	전염병이 유행하여 그 어머니가 위독하게 되자 양흡은 자신도 몹시 앓아 누웠으나 일어나 斷指 수혈하니 소생하여 몇 달을 연명하다가 죽었다.	제주목 (復戶)
43	오몽열 (吳夢悅)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廬幕에서 3년 동안을 죽으로 때면서 哀毀之禮를 다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와 똑같이 그리하였다. 그후 庶母를 섬기는 데 부친의 생존때와 다를 바 없이 하였다.	(정표) (인조2. 1624)
44	이계징 (李啓徵)	아버지가 병으로 눕자 하늘에 축원하며 자기가 대신할 것을 빌었다. 喪을 당하자 여막을 지어 哀毀之禮를 다했다.	조천읍 신촌리 (정표. 碑) (광무8. 1904)
45	이교신 (李喬新)	아버이를 섬기는데 至孝하여 定省之節과 甘旨之供을 다했다. 아버지가 병이 나자 藥餌를 쓰지 않은 것이 없었다.	대정고을(復戶) (고종19. 1882)

46	이영조 (李永祚)	13세 때 어머니 양씨가 난치병으로 약을 썼으나 효험이 없었으므로 손가락을 잘라 어머니 입으로 수혈하니 병이 나아서 천수를 다하였다.	구좌읍 종달리 (정표. 碑) (철종10, 1859)
47	이필완 (李弼完)	유복자로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아버지를 위하여는 追服하여 喪祭典에 반드시 정성을 다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 곁에 廬幕을 지어 지성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어머니 생시에 쇠고기를 먹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평이나 닭으로 제사를 지냈다.	애월읍 금성리 (정표. 예조참판애증직. 碑) (정조5, 1781)
48	임재발 (任在發)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그 뜻에 어기지 아니하고 溫淸之節과 甘旨之供을 다하며 誠敬으로써 행하였다.	대정 고을 (復戶) (고종19, 1882)
49	조인철 (趙仁哲)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조석으로 문안드렸고 돌아가신 후에는 묘 곁에 여막을 지어 수묘하였다. 또 폭풍우나 뇌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성묘하고 哭拜하였다.	한림읍 귀덕리 (정표. 碑) (철종11, 1861)
50	진대석 (秦大碩)	軍校였는데,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했다. 어머니가 다리병으로 앓고 서려면 사람에게 기대어야 하므로 대석이 立番할 때면 어머니를 城中으로 업고 가서 양식을 얻어 봉양하고 退番하게 되면 업고서 여러 곳을 다니며 반드시 봉양할 양식을 준비했다. 처자가 있으면 모친을 봉양하는데 專心하지 못할까 두려워 장가들지 않고 홀로 살면서 정성스레 스스로 밥을 지어 공양하였다.	애월읍 광령리 (정려. 碑) (인조12, 1634)
51	채광근 (蔡光謹)	청렴하여 백성들게 폐되는 바가 없었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어버이를 섬기는데 효성을 다했고 항시 구미에 맞는 음식을 여쭙 공양하였다. 어버이의 喪을 당하니 3년간을 蔬食하며 상복을 벗지 아니하고 哀毀之禮를 다했다.	조천읍 북촌리 (정표) (정조24, 1800)
52	현능락 (玄能洛)	천성이 至孝하여 早失父母하였으나 그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병으로 위급하게 되자 손가락을 깨물어 수혈하니 얼마 동안 목숨이 연장되었다.	정의 고을 (완문)
53	현원상 (玄遠祥)	어버이 섬기기에 지성을 다하였다. 어버이가 병이 나자 똥을 맛보며 병세를 가늠하였다. 어버이 喪을 당하자 슬퍼함이 법도를 넘었으며, 朔奠. 節祀에는 반드시 목욕 제계하고 무덤에 가서 哭奠을 하였다.	애월읍 어도리 (정려) (순조22, 1822)
54	현윤경 (玄胤慶)	성품이 至孝하였는데, 아버지의 용병으로 잠자리를 남에게 의지하여야 하므로 좌우로 부축하여 몸을 편하게 하고 몸소 음식을 끓여다가 때때로 드린지 4~5년이 되었지만 하루와 같이 간호하였다. 아버지가 위급하게 되자 지혈로 몇 시간을 연명하게 하였다.	정의현 (정표) (순조14, 1814)
55	현재권 (玄才權)	어려서부터 효심이 至純하였다. 喪을 당하자 哀毀之禮를 다하고 喪葬之祭에 誠力을 다하였다.	정의 고을 (완문)
56	현재옥 (玄才玉)	부모를 공양하는 어려운 지경에도 동에 가서 품팔고 서에서 품삷 받아 쌀 되나 고기를 얻게 되면 반드시 부모님의 구미에 맞게 하여 음식을 드렸다. 부모의 喪을 당하자 장례와 제사를 禮로써 극진히 하였다.	안덕면 덕수리 (완문. 표창. 碑)

57	현지화 (玄智化)	맹인이었으나 성품이 淳裕했다. 노부가 병이 나자 앞을 보지 못하여 醫藥과 定省甘旨를 못함을 한탄하며 정성을 다하여 친히 주야로 약을 달여 드리면서 간호했다. 喪을 당하자 葬祭하는데 哀毀之禮를 다하였다.	정의 고을 (완문. 復戶)
58	홍달한 (洪達漢)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일찌기 병이 들어서 몇 해가 되었는데 병이 위독하게 되자 指血하고 약에 혼합하여 마시게 했다. 또 똥을 맛보아 병의 차도가 있고 없음을 중험하여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노모사망 후에는 직접 돌을 나르고 산담을 쌓고 묘역을 정성껏 정화하였다.	성산읍 수산리 (복명. 復戶. 碑) (영조20, 1744)
59	홍봉호 (洪奉浩)	가난하였으나 양친을 모시는데 가난함을 돌보지 아니하고 溫清之節과 甘旨之供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의 부인도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서 똥·오줌을 자리에서 치웠는데 조금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약시중도 오래하였다.	정의현 (완문)

資料: 제주도 문화공보실(1984), 『제주 충효열지』, 일신옵셋 인쇄사, pp. 77~120.
북제주군 공보실 (1982), 『내고장 전통문화』, 일신옵셋인쇄사, pp. 21~51.
제주도 교육위원회(1985), "삼무의 열," 『교육자료』, 태화인쇄사, p. 120.
제주도 교육연구원(1988), 『삼무정신 지역화 교수·학습자료』, 일신옵셋인쇄사, p. 20.
————— (1985), "사회과 향토교육자료," 『중학교용』, 춘추문화사, p. 228~p. 230.

이와 같이 사례를 통해 살펴 보더라도 이들 모두가 至善의 경지에 달하지 않은 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결음 더 나아가 문헌의 기록 여부를 막론하고 곳곳에 효자비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인 것을 볼 때 우리 제주 선인들이 부모를 어떻게 모셨던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섬기는 일중에 부모 섬기는 일인 효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효의 의무는 부모의 생산과 양육의 은혜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인 효는 아무리 하여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효는 끝이 없다.

이상은 구체적으로 전통적 효의 개념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문헌을 통한 전통적 효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주로 古論에 의하여 重要視하고 있는 효 요소 9가지를 중심으로 考察하였고, 제주 선인들의 특수한 삶의 환경 속에서 효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따라서 本稿의 설문지 내용은 효 내용중에 중요시 되고 있는 생과 사후의 전통적 효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III. 研究 方法

1. 調査道具

본 연구에 사용된 의식구조 실태조사를 위한 도구는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효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범주로 생전의 효 영역과 사후의 효 영역으로 나누었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영역	문항번호	내용	용어	
生前의 孝	6	부모님이 정한 결혼 상대자 수용 여부	(順從의 孝)	
	7	경제적 빈곤시 부모님 부양 문제	(奉養의 孝)	
	8	평상시 부모와 자식중 선택 여부	(奉養의 孝)	
	9	부모님이 정한 장래 직업에 대한 수용 여부	(養志의 孝)	
	10	결혼 후 부모님 모시는 문제	(奉養의 孝)	
	11	부모님에 대한 직언	(忠諫의 孝)	
	12	위급시 부모와 자식중 선택 여부	(奉養의 孝)	
	13	원거리 직장에 따른 부모님 모시는 정도	(恭敬의 孝)	
	14	부모님 병환시 간호 정도	(養護의 孝)	
	15	휴일에 부모님을 도와 드리는 정도	(順從의 孝)	
	死後의 孝	16	부모님 별세하였을 때 묘지 계획	(死後의 孝)
		17	부모님 사후 제사 계획	(死後의 孝)
		18	명절 연휴때 관광 여행지에서의 차례	(死後의 孝)
		19	부모님 묘에 대한 벌초와 성묘 계획	(死後의 孝)
		20	부모님 뇌사시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	(保身の 孝)

문항 제작은 설문지 작성을 위해 선행 연구 및 참고 서적 그리고 조사자가 평소 생각했던 사항들을 가미하여 이 연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배경 조사문항 5개를 포함 20개 문항으로 자작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는 4개의 選擇肢를 준비하되 選擇肢 1번은 각 덕목의 수준에 최고이고, 4번 선택지는 최하 수준의 것으로 준비하였다.

이 문항중 본 연구의 중핵을 이루는 효의식의 내용을 영역별로 제시하면 〈표2〉

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標 集

표집 지역은 제주도로 한정하였는데, 제주시와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별·계열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제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남·여 각 2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남·여 각 2개교, 읍(면)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남·여 각 2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남·여 각 2개교를 택하였다. 표집 대상은 2학년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설문지 조사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 분	계열별	성 별	설문지 배부수	회수된 수	사용 불가능한 수	유효한 수	회수율 (%)
제주시	인문계	남	89	89	11	78	100
		여	84	84	21	63	100
	실업계	남	90	90	8	82	100
		여	89	89	9	80	100
읍(면)	인문계	남	86	86	8	78	100
		여	87	87	4	83	100
	실업계	남	94	94	7	87	100
		여	95	95	12	83	100
계			714	714	80	634	100

실태조사는 1996년 12월초에 설문지를 완성하여 도내 각 시·읍(면)에 주재하고 있는 학교에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주일 동안에 걸쳐 실시 되었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학교를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의 사전 협조된 교사로 하여금 무작위로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조사 실시하게 한 후 조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714부를 배부하여 714부 모두를 회수함으로써 100%

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 응답 결과를 통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한 문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을 하거나 1개 이상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아 내용이 부실하거나 성의없는 응답으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료 80부는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 연구대상 인원은 634명이다.

〈표 4〉 일반적 배경

변 수	구 분	N	%	계
성 별	남	327	51.6	634
	여	307	48.4	
계 열	인문고	303	47.8	634
	실업고	331	52.2	
지 역	제주시	302	47.6	634
	읍·면	332	52.4	
부 모 유 무	부모 유	564	89.0	634
	부만 유	19	3.0	
	모만 유	44	6.9	
	기 타	7	1.1	
조부모 유 무	조부모 유	132	20.8	634
	조부만 유	18	2.8	
	조모만 유	304	47.9	
	기 타	180	28.4	



3. 資料處理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했으며, 사용된 통계치는 평균(M), 백분비(%), 표준편차(SD)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 및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의 평균(M)과 백분비(%)를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배경 변인별 유의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적 검증은 χ^2 - 검증을 사용하였다.

IV. 結果와 論議

결과 분석은 조사 도구에서 제시한 28개의 문항에 대한 표집 대상들의 반응 결과를 영역별 문항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총괄적 반응 경향 및 반응 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표집 대상의 전통 효의 배경 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해석하며, 셋째 8가지 효 요소를 중심으로 전체 및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 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하려고 한다.

1. 傳統的 孝에 대한 생각

1) 順從의 효

아버이에게 고분고분하여 거스르지 않고 복종하여 마음으로 극진히 잘 섬기는 순종의 효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2개의 물음을 제시한 바 그 결과는 각각 다음의 <표 5>, <표 6> 과 같이 나타났다.

〈표 5〉 부모님이 정해진 결혼 상대자 수용에 대한 효의식

N	M	SD	반 응 구 분 (%)			
			매 우 찬 성	조 금 찬 성	조 금 반 대	매 우 반 대
634	3.555	0.712	1.6	8.2	23.3	66.9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님에게 복종하겠다는 학생은 1.6%에 불과하며 66.9%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효 사상으로는 무조건 부모님이 정해 준 결혼 상대자와 결혼을 했었지만 오늘날의 고교생들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순종의 효의식이 희미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휴일에 친구와 놀러가지 않고 부모님을 돕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학생이 42.7%, 또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학생이 43.7%로 나타남으로써 이 물음에서만 볼 때, 순종의 효의식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가지 질문에 상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요즈음의 고교생들은 전통적인 자녀처럼 무조건 모든 것에 복종하기보다는 일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순종적임을 알 수 있다.

<표 6> 휴일에 부모님을 도와 드리는 정도의 효의식

N	M	SD	반응구분 (%)			
			당연히 부모님을 돕겠다.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	약간 일을 돕는 척 하다가 놀러 가겠다.	무조건 놀러 가겠다.
634	1.722	0.728	42.7	43.7	12.1	1.4

2) 保身의 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다치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아버지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전통적 保身의 효의식을 易地思之 입장에서 현실에 접목시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님 뇌사시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반응은' '고려해 볼 가치도 없는 일이므로 절대로 안 하겠다.' 25.7%, '고려해 보겠다.' 28.7%,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기증하겠다.' 41.5%, '무조건 장기를 기증하겠다.' 4.1%로 나타났다.

<표 7> 부모님 뇌사시 장기 기증에 대한 효의식

N	M	SD	반응구분 (%)			
			고려해 볼 가치도 없는 일이므로 절대로 안 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가족들의 동의한다면 기증하겠다.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므로 무조건 장기를 기증하겠다.
634	2.240	0.883	25.7	28.7	41.5	4.1

3) 奉養의 효

거소를 편안하게 해 드리고, 항상 좋은 음식으로 아버지의 수중을 잘 받들어 모

시는 봉양의 효의식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시 부모님 부양에 대한 효의식과 자식보다는 부모님을 우선 모셔야 한다는 의식 및 결혼하게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겠느냐는 반응 경향은 '매우 찬성한다'가 각각 50.9%, 59.8%, 47.9%로 응답하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봉양의 효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전통적 봉양의 효의식

(n=634)

조사 내용	M	SD	반응 구분 (%)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경제적 빈곤시 부모님 부양에 대한 효의식	1.793	0.925	50.9	23.0	21.8	4.3
부모님과 자식 중 선택 비중의 효의식	1.574	0.823	59.8	27.4	8.4	4.4
결혼 후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 있어 수용에 대한 효의식	1.711	0.819	47.9	37.1	10.9	4.1

아울러 '만일 부모와 자신의 자식이 동시에 위급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다음의 〈표 9〉과 같이 '반드시 부모부터 구하겠다.'가 27.4%, '가능하면 부모부터 구하겠다.'가 59.5%로 반응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봉양의 효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위급시 부모와 자식중 선택 정도의 효의식

N	M	SD	반응 구분 (%)			
			반드시 부모부터 구하겠다.	가능하면 부모부터 구하겠다.	가능하면 자식부터 구하겠다.	반드시 자식부터 구하겠다.
634	1.860	0.629	27.4	59.5	12.8	0.3

4) 忠諫의 효

아버이의 불의나 불합리한 일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리고 잘못된 행위는 고치도록 諫言하는 전통적 忠諫의 효의식에 대한 전체 반응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점이 있다면 큰 잘못은 물론 작은 잘못이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 20.0%, '매우 반대한다' 가 7.1%를 차지하여 부모님에 대한 직언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금찬성'은 49.1%로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직언을 하겠다고 나타났다.

〈표 10〉 부모님 잘못에 대하여 직언 정도에 대한 효의식

N	M	SD	반응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634	2.820	0.831	20.0	49.1	23.8	7.1

5) 養志의 효

아버이 덕행과 의도하는 바 그리고 유지를 잘 받들어 발전시켜 나가는 양지의 효의식 조사에 따른 전체적인 반응은 부모님이 정해 준 장래 직업을 수용하겠다는 데에 긍정적인 반응이 1.9%, 매우 반대한다가 56.0%를 차지하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11〉 부모님이 정해진 장래 직업 수용에 대한 효의식

N	M	SD	반응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634	3.427	0.741	1.9	9.5	32.6	56.0

6) 恭敬의 효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경의 효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 조건이 제주도 보다 서울이 낫다고 판단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제시한 결과 다음의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12〉 원거리 직장에 따른 부모님 모시는 정도

N	M	SD	반응구분 (%)			
			부모님이 계신 제주도로 내려 오겠다.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 가겠다.	직장은 서울에 두고 가끔 부모님을 뵈러 오겠다.	부모님과는 관계 없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겠다.
634	2.486	0.807	17.5	18.9	61.0	2.5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61.0%가 직장은 서울에 두고 가끔 부모님을 뵈러 오겠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계신 제주도로 내려오겠다고 응답한(17.5%) 경우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공경의 효의식이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7) 養護의 효

아버지가 질환이 나면 모든 일을 폐하고 탕약을 해드리고 지성으로 극진히 간호하는 양호의 효의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13〉과 같이 응답자의 52.7%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양호의 효의식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3〉 부모님 병환시 간호정도에 대한 효의식

N	M	SD	반응구분 (%)			
			병환중 여행은 도리가 아니므로 무조건 여행을 포기하겠다.	병환의 정도에 따라 여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친구의 의견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겠다.	약속이 중요하므로 무조건 여행을 가겠다.
634	1.502	0.568	52.7	45.3	1.3	0.8

8) 死後(喪.祭禮)의 효

사후의 효란 애통한 마음으로 지난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회상하고 아버지의 덕업을 자손에게 가르치며 엄숙히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효를 말한다. 이러한 사후의 효의식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개의 물음을 제시한 바 그 반응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묘지 계획에 대한 효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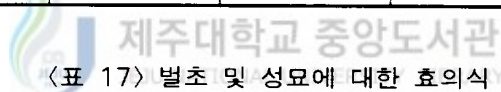
N	M	SD	반응구분 (%)			
			풍수지리에 따라 개인 묘자리를 찾아 정성껏 모시겠다.	가족 공동 묘지를 만들어 모시겠다.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겠다.	화장해서 그재를 바다에 뿌리겠다.
634	1.782	0.670	31.5	62.8	1.6	4.1

〈표 15〉 부모님 돌아가신 후 제사에 대한 효의식

N	M	SD	반응구분 (%)			
			정성을 다하여 풍성하게 지내겠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가정의례 준칙을 따르겠다.	생활 형편에 따라 되는대로 지내겠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634	1.886	0.688	25.4	65.1	4.9	4.6

〈표 16〉 명절 연휴때 관광지에서 차례 지내는데 대한 효의식

N	M	SD	반응구분 (%)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마음이 중요하므로 장소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634	1.716	0.915	57.7	15.0	24.9	2.2



〈표 17〉 벌초 및 성묘에 대한 효의식

N	M	SD	반응구분 (%)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묘를 돌봐야 한다.	추석 명절 때만 묘를 찾아 성묘를 하면 된다.	바깥 때는 한해 정도 걸러서 성묘와 벌초를 해도 된다.	묘를 꼭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634	1.235	0.551	81.9	13.6	3.8	0.8

위의 〈표 14〉〈표 15〉〈표 16〉〈표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묘지계획, 제사 지내기, 관광지에서의 차례 지내기, 벌초 및 성묘에 대하여 각각 94.3%, 90.5%, 57.7%, 81.9%로 반응하고 있어서 조사 대상자의 사후의 효의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에서 전통적인 효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효의 영역을 순종, 보신, 봉양, 충

간, 양지, 공경, 양호, 사후의 효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1~4개의 물음을 제시하고 그 결과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보신, 봉양, 충간, 양호, 사후의 효의식은 높은 편이나, 순종, 양지, 공경의 효 의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傳統的 孝 意識에 대한 背景 變人別 反應 結果

1) 順從의 효의식

전통적인 순종의 효의식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반응 결과는 효의식이 다소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p<0.001)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71.9%)이 여학생(61.6%) 보다는 전통적 순종의 효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18> 부모님이 정해진 결혼 상대자 수용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성별	남	327(51.6)	3.65	0.63	17.377***	1.5	4.0	22.6	71.9
	여	307(48.4)	3.46	0.78		1.6	12.7	24.1	61.6
계열	인문고	303(47.8)	3.55	0.72	1.029	2.0	7.6	24.1	66.3
	실업고	331(52.2)	3.56	0.70		1.2	8.8	22.7	67.4
지역	제주시	302(47.6)	3.60	0.68	2.196	1.0	7.9	25.2	65.9
	읍·면	332(53.4)	3.55	0.74		2.1	8.4	21.7	67.8
부모	부모 유	564(89.0)	3.55	0.71	5.938	1.6	8.2	23.8	66.5
	부만 유	19(2.0)	3.42	0.77		0.0	15.8	26.3	57.9
	모만 유	44(6.9)	3.59	0.73		2.3	6.8	20.5	70.5
	기 타	7(1.1)	4.00	0.00		0.0	0.0	0.0	0.7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3.61	0.63	8.711	0.8	5.3	26.5	67.4
	조부만 유	18(2.8)	3.39	0.85		0.0	22.2	16.7	61.1
	조모만 유	304(48.0)	3.53	0.74		2.0	8.9	23.7	65.5
	기 타	180(28.4)	3.58	0.71		1.7	7.8	21.1	69.4

(*** p<0.001)

반면에 <표 19>에서 나타난 것처럼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지역별

($p < 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49.7%)이 읍·면 (36.4%) 지역보다 순종의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휴일에 부모님을 도와 드리는 정도의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당연히 부모님을 돕겠다.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	약간 일을 돕는척 하다가 놀러가겠다.	무조건 놀러가겠다.
성별	남	327(51.6)	1.69	0.74	3.480	46.2	40.7	11.6	1.5
	여	307(48.4)	1.76	0.72		39.1	46.9	12.7	1.3
계열	인문고	303(47.8)	1.78	0.74	3.153	39.6	44.9	13.9	1.7
	실업고	331(52.2)	1.67	0.71		45.6	42.6	10.6	1.2
지역	제주시	302(47.6)	1.66	0.76	**	49.7	36.8	11.6	2.0
	읍·면	332(53.4)	1.78	0.69	14.273	36.4	50.0	12.7	0.9
부모	부모 유	564(89.0)	1.72	0.74	8.160	43.6	42.2	12.6	1.6
	부만 유	19(2.0)	1.63	0.68		47.4	42.1	10.5	0.0
	모만 유	44(6.9)	1.80	0.59		29.5	61.4	9.1	0.0
	기 타	7(1.1)	1.57	0.54		42.9	57.1	0.0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71	0.80	13.063	48.5	34.8	14.4	2.3
	조부만 유	18(2.8)	1.89	0.68		27.8	55.6	16.7	0.0
	조모만 유	304(48.0)	1.75	0.71		40.1	45.7	13.5	0.7
	기 타	180(28.4)	1.68	0.71		44.4	45.6	7.8	2.2

(** $p < 0.01$)



2) 保身の 효의식

『孝經』에서 ‘우리의 신체와 피부는 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털끝 하나라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전통 효의식을 易地思之 입장에서 현실에 접목시켜 ‘부모님 뇌사시 장기 기증’에 대한 변인별 반응을 알아본 결과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읍·면(44.0%)이 제주시(38.7%)보다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기증하겠다’는 반응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신체는 일부분이라도 훼손을 하면 크게 불효한다는 전통적 保身の 효의식이 상당히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부모님 뇌사시 장기 기증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일 이므로절 대로 안 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가족들이 동의한다 면 기증 하겠다.	죽으면 육 신은썩어 없어지므로 무조건 기 증하겠다.
성별	남	327(51.6)	2.26	0.90	2.173	25.7	27.8	41.3	5.2
	여	307(48.4)	2.22	0.86		25.7	29.6	41.7	2.9
계열	인문고	303(47.8)	2.19	0.90	2.906	28.7	27.4	40.3	3.6
	실업고	331(52.2)	2.29	0.87		23.0	29.9	42.6	4.5
지역	제주시	302(47.6)	2.21	0.86	4.222	25.2	32.5	38.7	3.6
	읍·면	332(53.4)	2.27	0.90		26.2	25.3	44.0	4.5
부모	부모 유	564(89.0)	2.24	0.88	7.525	25.4	28.7	42.2	3.7
	부만 유	19(2.0)	2.21	1.03		31.6	26.3	31.6	10.5
	모만 유	44(6.9)	2.27	0.95		27.3	25.0	40.9	6.8
	기 타	7(1.1)	1.86	0.69		28.6	57.1	14.3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2.27	0.82	6.270	21.2	32.6	43.9	2.3
	조부만 유	18(2.8)	2.06	1.00		38.9	22.2	33.3	5.6
	조모만 유	304(48.0)	2.23	0.88		26.0	28.6	41.4	3.9
	기 타	180(28.4)	2.24	0.92		27.2	26.7	40.6	5.6

3) 奉養의 효의식

아버지의 수중을 잘 받들어 모시는 봉양의 효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반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는 〈표 21〉…〈표 24〉와 같다.

경제적 빈곤시 부모님 부양에 대한 효의식 조사에서는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성별(p<0.001), 계열별 (p<0.05), 지역별(P<0.01)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54.7%)이 여학생(44.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교생이(54.7%) 인문계 고교생(46.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57.5%)이 제주시 지역(43.7%)보다 부모님 부양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 경제적 빈곤시 부모님 부양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성별	남	327(51.6)	1.64	0.85	*** 21.064	57.2	24.5	15.3	3.1
	여	307(48.4)	1.95	0.98		44.3	21.5	28.7	5.5
계열	인문고	303(47.8)	1.87	0.96	* 6.848	46.9	25.1	22.1	5.9
	실업고	331(52.2)	1.72	0.89		54.7	21.1	21.5	2.7
지역	제주시	302(47.6)	1.88	0.91	** 14.172	43.7	28.5	23.5	4.3
	읍·면	2(53.4)	1.71	0.93		57.5	18.1	20.2	4.2
부모	부모 유	564(89.0)	1.82	0.93	18.620	49.1	24.6	21.6	4.6
	부만 유	19(2.0)	1.32	0.67		78.9	10.5	10.5	0.0
	모만 유	44(6.9)	1.61	0.92		65.9	9.1	22.7	2.3
	기 타	7(1.1)	2.29	0.95		28.6	14.3	57.1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79	0.88	5.700	49.2	25.0	23.5	2.3
	조부만 유	18(2.8)	2.00	1.08		44.4	22.2	22.2	11.1
	조모만 유	304(48.0)	1.77	0.91		51.3	24.0	20.7	3.9
	기 타	180(28.4)	1.81	0.97		52.2	20.0	22.2	5.6

(* p<0.05 ** p<0.01 *** p<0.001)

부모님과 자식 중 선택 비중에 대한 효의식도 조사에서는 다음의 〈표 22〉에 나타난 것처럼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지역별(p<0.01)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즉 읍·면 지역(64.5%)이 제주시 지역(54.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위의 〈표 21〉의 결과와 같이 읍·면지역 학생이 보편적으로 제주시 지역학생보다 전통적 봉양의 효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 부모님과 자식 중 선택 비중의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성별	남	327(51.6)	1.53	0.79	4.533	61.5	28.1	6.1	4.3
	여	307(48.4)	1.62	0.85		58.0	26.7	10.7	4.6
계열	인문고	303(47.8)	1.58	0.86	5.143	61.4	23.8	9.9	5.0
	실업고	331(52.2)	1.57	0.79		58.3	30.8	6.9	3.9
지역	제주시	302(47.6)	1.69	0.94	** 12.968	54.6	27.8	11.3	6.3
	읍·면	332(53.4)	1.47	0.73		64.5	27.1	5.7	2.7
부모	부모 유	564(89.0)	1.58	0.83	9.261	59.9	27.1	8.2	4.8
	부만 유	19(2.0)	1.47	0.61		57.9	36.8	5.3	0.0
	모만 유	44(6.9)	1.66	0.80		52.3	31.8	13.6	2.3
	기 타	7(1.1)	1.00	0.00		7.0	0.0	0.0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61	0.91	4.206	60.6	24.2	8.3	6.8
	조부만 유	18(2.8)	1.66	0.91		55.6	27.8	11.1	5.6
	조모만 유	304(48.0)	1.56	0.79		59.2	29.6	7.6	3.6
	기 타	180(28.4)	1.57	0.82		60.6	26.1	9.4	3.9

(** p<0.01)

결혼 후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 있어 수용에 대한 효의식 조사 결과에서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p<0.001)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어서, 남학생(54.4%)이 여학생(41.0%)보다 높은 효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그 외의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모 자식이 모두 위급시 선택 정도에 따른 봉양의 효의식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24>과 같이 배경 변인 중 성별(p<0.05), 계열별(p<0.01)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를 보이고 그 외의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31.5%)이 여학생(2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65.7%)가 실업계(53.8%)보다 부모님이 자식보다 우선하는 전통적인 봉양의 효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23> 결혼 후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 있어 수용에 대한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성별	남	327(51.6)	1.61	0.80	16.616	54.4	34.3	7.0	4.3
	여	307(48.4)	1.82	0.83		41.0	40.1	15.0	3.9
계열	인문고	303(47.8)	1.67	0.81	3.001	50.5	36.3	8.9	4.3
	실업고	331(52.2)	1.75	0.82		45.6	37.8	12.7	3.9
지역	제주시	302(47.6)	1.72	0.81	1.043	46.7	39.1	10.3	4.0
	읍·면	332(53.4)	1.70	0.83		49.1	35.2	11.4	4.2
부모	부모 유	564(89.0)	1.73	0.84	7.571	47.9	36.2	11.5	4.4
	부만 유	19(2.0)	1.68	0.75		42.1	52.6	0.0	5.3
	모만 유	44(6.9)	1.57	0.63		50.0	43.2	6.8	0.0
	기 타	7(1.1)	1.57	0.79		57.1	28.6	14.3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61	0.75	13.748	51.5	38.6	6.8	3.0
	조부만 유	18(2.8)	1.50	0.71		61.1	27.8	11.1	0.0
	조모만 유	304(48.0)	1.77	0.81		44.1	38.5	14.1	3.3
	기 타	180(28.4)	1.71	0.88		50.6	34.4	8.3	6.7

(*** p<0.001)

봉양의 효에 대한 고교생들의 효의식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 영역의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는 점은 아직까지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아들의 도리 내지는 의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부모가 계시고 안계시고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편모 또는 편부 슬하의 학생들이 부모 슬하에 있는 경우보다 보편

적으로 봉양의 효의식이 높게 분석되었다.

〈표 24〉 위급시 부모와 자식중 선택 정도의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반드시 부모부터 구하겠다.	가능하면 부모부터 구하겠다.	가능하면 자식부터 구하겠다.	반드시 자식부터 구하겠다.
성별	남	327(51.6)	1.82	0.66	7.723	31.5	55.7	12.2	0.6
	여	307(48.4)	1.90	0.60		23.1	63.5	13.4	0.0
계열	인문고	303(47.8)	1.89	0.59	12.183	22.8	65.7	10.9	0.7
	실업고	331(52.2)	1.83	0.66		31.7	53.8	14.5	0.0
지역	제주시	302(47.6)	1.89	0.65	2.370	26.5	58.3	14.9	0.3
	읍·면	332(53.4)	1.83	0.61		28.3	60.5	10.8	0.3
부모	부모 유	564(89.0)	1.87	0.63	7.080	26.6	59.9	13.1	0.4
	부만 유	19(2.0)	1.84	0.69		31.6	52.6	15.8	0.0
	모만 유	44(6.9)	1.66	0.57		38.6	56.8	4.5	0.0
	기 타	7(1.1)	2.14	0.69		14.3	57.1	28.6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88	0.64	3.418	27.3	57.6	15.2	0.0
	조부만 유	18(2.8)	1.89	0.68		27.8	55.6	16.7	0.0
	조모만 유	304(48.0)	1.87	0.61		25.7	61.8	12.2	0.3
	기 타	180(28.4)	1.82	0.64		30.6	57.2	11.7	0.6

(* p<0.05 ** p<0.01)



4) 忠諫의 효의식

어버이의 불의나 불합리한 일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리는 충간의 효의식도 조사에서는 다음의 〈표 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배경 변인 중 성별(p<0.05)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23.5%)이 남학생(1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라도 잘못하시는 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자식이 이를 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과거에 자식이 감히 부모에게 직언하는 것은 불효가 아닐까 하고 잘못 생각하던 때와는 전통 효의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 부모님 잘못에 대하여 직언 정도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성별	남	327(51.6)	2.74	0.84	6.514 *	16.8	48.9	25.7	8.6
	여	307(48.4)	2.91	0.82		23.5	49.2	21.8	5.5
계열	인문고	303(47.8)	2.84	0.83	1.083	21.1	48.2	24.4	6.3
	실업고	331(52.2)	2.80	0.84		19.0	49.8	23.3	7.9
지역	제주시	302(47.6)	2.80	0.84	1.673	20.2	46.7	25.8	7.3
	읍·면	332(53.4)	2.84	0.82		19.9	51.2	22.0	6.9
부모	부모 유	564(89.0)	2.83	0.83	3.515	20.4	49.5	23.2	6.9
	부만 유	19(2.0)	2.84	0.83		21.1	47.4	26.3	5.3
	모만 유	44(6.9)	2.64	0.89		15.9	43.2	29.5	11.4
	기 타	7(1.1)	2.86	0.69		14.3	57.1	28.6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2.88	0.83	11.022	22.7	48.5	22.7	6.1
	조부만 유	18(2.8)	2.44	0.86		5.0	50.0	27.8	16.7
	조모만 유	304(48.0)	2.85	0.85		22.7	45.7	25.0	6.6
	기 타	180(28.4)	2.77	0.80		15.0	55.0	22.2	7.8

(* p<0.05)

5) 養志의 효의식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어 발전시켜 나가는 효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는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별(p<0.05)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를 보이고 그 외의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56.4%)가 실업계(55.6%)보다 낮은 효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미한 차의 결과는 있으나, 전변인별 전반적인 결과로 보아 오늘날의 고교생들은 전통적인 양지의 효의식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급변하는 사회 생활에 맞추어 효의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표 26〉 부모님이 정해진 장래 직업 수용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성별	남	327(51.6)	3.42	0.75	1.493	2.4	8.9	33.3	55.4
	여	307(48.4)	3.44	0.73		1.3	10.1	31.9	56.7
계열	인문고	303(47.8)	3.43	0.73	9.989	0.7	12.2	30.7	56.4
	실업고	331(52.2)	3.43	0.75		3.0	6.9	34.4	55.6
지역	제주시	302(47.6)	3.47	0.72	2.944	2.0	7.6	31.8	58.6
	읍·면	332(53.4)	3.39	0.76		1.8	11.1	33.4	53.6
부모	부모 유	564(89.0)	3.44	0.74	13.773	1.8	9.4	32.3	56.6
	부만 유	19(2.0)	3.37	0.96		5.3	15.8	15.8	63.2
	모만 유	44(6.9)	3.30	0.70		2.3	6.8	50.0	40.9
	기 타	7(1.1)	3.71	0.76		0.0	14.3	0.0	85.7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3.45	0.72	3.961	2.3	6.8	34.1	56.8
	조부만 유	18(2.8)	3.28	0.90		5.6	11.1	33.3	50.0
	조모만 유	304(48.0)	3.42	0.75		1.6	10.9	30.9	56.6
	기 타	180(28.4)	3.43	0.72		1.7	8.9	34.4	55.0

(* p<0.05)

6) 恭敬의 효의식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공경의 효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배경 변인별 분석 결과로는 성별(p<0.001), 계열별(p<0.001)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25.1%)이 여학생(9.4%)에 비해 훨씬 더 부모님 모시는 정도의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열별로는 실업계(23.9%)가 인문계(10.6%)보다 더 공경의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인의 직장에 따라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가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인문계(21.5%)가 실업계(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7〉 원거리 직장에 따른 부모님 모시는 정도의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부모님이 계신 제주도 로 내려 오겠다.	부모님 을 서울 로 모셔 가겠다.	직장은서 울에 두고 가끔 부모 님을 뵈러 오겠다.	부모님과 는 관계없 이 서울에 서 직장을 다니겠다.
성 별	남	327(51.6)	2.31	0.88	*** 40.130	25.1	22.0	49.8	3.1
	여	307(48.4)	2.67	0.67		9.4	15.6	73.0	2.0
계 열	인문고	303(47.8)	2.60	0.71	*** 19.746	10.6	21.5	65.3	2.6
	실업고	331(52.2)	2.38	0.87		23.9	16.6	57.1	2.4
지 역	제주시	302(47.6)	2.51	0.81	1.606	17.2	18.2	61.3	3.3
	읍·면	332(53.4)	2.47	0.80		17.8	19.6	60.8	1.8
부 모	부모 유	564(89.0)	2.51	0.81	9.532	17.0	17.7	62.4	2.8
	부만 유	19(2.0)	2.26	0.87		26.3	21.1	52.6	0.0
	모만 유	44(6.9)	2.27	0.79		20.5	31.8	47.7	0.0
	기 타	7(1.1)	2.43	0.79		14.3	28.6	57.1	0.0
조 부 모	조부모 유	132(20.8)	2.51	0.81	4.195	16.7	19.7	59.8	3.8
	조부만 유	18(2.8)	2.33	0.97		27.8	16.7	50.0	5.6
	조모만 유	304(48.0)	2.48	0.80		17.8	17.8	62.8	1.6
	기 타	180(28.4)	2.49	0.80		16.7	20.6	60.0	2.8

(*** p<0.001)

7) 養護의 효의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양호의 효의식도 조사 결과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53.7%)이 남학생(51.7%)보다 부모님 병환시 간호 정도에 대한 효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는 전통 효의식이 5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물질주의 사상에 흡수되어 전통적 효의식이 상실되어 간다고 기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28〉 부모님 병환시 간호 정도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병환중 여행은 도리가 아니므로 무조건 여행을 포기하겠다.	병환의 정도에 따라 여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친구의 의견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겠다.	약속이 중요하므로 무조건 여행을 가겠다.
성별	남	327(51.6)	1.52	0.60	2.141	51.7	45.6	1.5	1.2
	여	307(48.4)	1.48	0.54		53.7	45.0	1.0	0.3
계열	인문고	303(47.8)	1.50	0.53	5.002	51.8	46.9	1.3	0.0
	실업고	331(52.2)	1.51	0.61		53.5	43.8	1.2	1.5
지역	제주시	302(47.6)	1.50	0.58	0.637	52.6	45.4	1.0	1.0
	읍·면	332(53.4)	1.50	0.56		52.7	45.2	1.5	0.6
부모	부모 유	564(89.0)	1.51	0.57	14.253	51.6	46.3	1.2	0.9
	부만 유	19(2.0)	1.37	0.50		63.2	36.8	0.0	0.0
	모만 유	44(6.9)	1.41	0.50		59.1	40.9	0.0	0.0
	기 타	7(1.1)	1.43	0.79		71.4	14.3	14.3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54	0.56	6.134	48.5	50.0	0.8	0.8
	조부만 유	18(2.8)	1.67	0.49		33.3	66.7	0.0	0.0
	조모만 유	304(48.0)	1.49	0.58		54.6	43.1	1.3	1.0
	기 타	180(28.4)	1.48	0.56		54.4	43.3	1.7	0.6



8) 死後(喪祭禮)의 효의식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묘지 계획에 대한 효의식을 분석한 결과 배경 변인 중 지역별 ($p < 0.05$)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계열별, 부모 유무, 조부모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읍·면(35.8%) 지역이 제주시(26.8%)보다 묘지 계획에 대한 효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 공동 묘지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응답한 학생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 지역(65.6%)이 읍·면(60.2%)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29〉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묘지 계획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풍수지리에 따라 명당 자리를 찾아 정성껏 모시겠다.	가족 공동묘지를 만들어 모시겠다.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겠다.	화장해서 그 재를 바다에 뿌리겠다.
성별	남	327(51.6)	1.73	0.66	5.050	35.2	59.6	1.8	3.4
	여	307(48.4)	1.83	0.68		27.7	66.1	1.3	4.9
계열	인문고	303(47.8)	1.78	0.69	2.650	32.7	60.7	2.3	4.3
	실업고	331(52.2)	1.78	0.65		30.5	64.7	0.9	3.9
지역	제주시	302(47.6)	1.86	0.70	8.815*	26.8	65.6	2.3	5.3
	읍·면	332(53.4)	1.71	0.64		35.8	60.2	0.9	3.0
부모	부모 유	564(89.0)	1.79	0.68	6.038	31.2	62.8	1.6	4.4
	부만 유	19(2.0)	1.63	0.50		36.8	63.2	0.0	0.0
	모만 유	44(6.9)	1.71	0.51		31.8	65.9	2.3	0.0
	기 타	7(1.1)	1.86	1.10		42.9	42.9	14.3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77	0.67	7.181	32.6	61.4	2.3	3.8
	조부만 유	18(2.8)	1.83	0.52		22.2	72.2	5.6	0.0
	조모만 유	304(48.0)	1.79	0.68		31.9	61.8	2.0	4.3
	기 타	180(28.4)	1.78	0.66		31.1	64.4	0.0	4.4

(* p<0.05)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사에 대한 효의식 분석 결과, 배경 변인 중 계열별 (p<0.05), 지역별 (p<0.05)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실업계(29.3%)가 인문계(21.1%)보다 더, 정성을 다하여 풍성하게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60% 이상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제사를 모시겠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미루어 제사에 대한 효의식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절 연휴 때 관광지에서 차례 지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배경 변인별 유의미한 차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응답자의 50% 이상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표 30〉 부모님 돌아가신 후 제사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정성을 다하여 풍성하게 지내겠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가정의례 준칙을 따르겠다.	생활 형편에 따라 되는 대로 지내겠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성별	남	327(51.6)	1.83	0.68	5.514	29.1	62.7	4.6	3.7
	여	307(48.4)	1.95	0.70		21.5	67.8	5.2	5.5
계열	인문고	303(47.8)	1.97	0.72	8.430	21.1	67.3	5.3	6.3
	실업고	331(52.2)	1.81	0.65		29.3	63.1	4.5	3.0
지역	제주시	302(47.6)	1.88	0.67	8.915	25.5	63.9	7.3	3.3
	읍·면	332(53.4)	1.89	0.71		25.3	66.3	2.7	5.7
부모	부모 유	564(89.0)	1.89	0.69	10.026	25.4	64.9	5.3	4.4
	부만 유	19(2.0)	1.79	0.42		21.1	78.9	0.0	0.0
	모만 유	44(6.9)	1.93	0.73		22.7	68.2	2.3	6.8
	기 타	7(1.1)	1.71	1.11		57.1	28.6	0.0	14.3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92	0.76	9.112	25.8	62.9	4.5	6.8
	조부만 유	18(2.8)	1.89	0.47		16.7	77.8	5.6	0.0
	조모만 유	304(48.0)	1.86	0.62		24.3	67.8	5.3	2.6
	기 타	180(28.4)	1.90	0.76		27.8	61.1	4.4	6.7

(*p<0.05)

〈표 31〉 명절 연휴때 관광지에서 차례 지내는데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마음이 중요하므로 장소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성별	남	327(51.6)	1.66	0.91	4.184	61.5	13.1	23.2	2.1
	여	307(48.4)	1.78	0.92		53.7	16.9	26.7	2.3
계열	인문고	303(47.8)	1.72	0.94	2.317	58.7	13.5	24.4	3.0
	실업고	331(52.2)	1.72	0.90		56.8	16.3	25.4	1.5
지역	제주시	302(47.6)	1.74	0.92	2.750	56.6	14.2	27.5	1.7
	읍·면	332(53.4)	1.69	0.91		58.7	15.7	22.6	2.7
부모	부모 유	564(89.0)	1.72	0.92	7.632	57.3	15.6	24.5	2.5
	부만 유	19(2.0)	1.52	0.91		73.7	0.0	26.3	0.0
	모만 유	44(6.9)	1.71	0.90		59.1	11.4	29.5	0.0
	기 타	7(1.1)	1.86	0.90		42.9	28.6	28.6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80	0.95	6.884	54.5	12.9	30.3	2.3
	조부만 유	18(2.8)	1.28	0.58		77.8	16.7	5.6	0.0
	조모만 유	304(48.0)	1.70	0.91		58.2	15.1	24.0	2.3
	기 타	180(28.4)	1.72	0.91		57.2	16.1	24.4	2.2

(** p<0.01)

아울러 부모님 묘에 대한 효의식도 조사에서도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차가 없으며, 벌초 및 성묘에 대한 효의식에 있어서는 여학생(84.0%)이 남학생(79.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 벌초 및 성묘에 대한 변인별 효의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보고 싶을 때는 언제 가서 묘를 돌봐야 한다.	추석명절 때만 묘를 찾아 벌초와 성묘를 하면 된다.	바쁠 때는 한해정도 걸려서 성묘와 벌초를 해도 된다.	묘를 꼭 찾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별	남	327(51.6)	1.27	0.59	3.031	79.8	15.0	4.0	1.2
	여	307(48.4)	1.20	0.50		84.0	12.1	3.6	0.3
계열	인문고	303(47.8)	1.21	0.53	1.646	83.8	11.9	3.6	0.7
	실업고	331(52.2)	1.26	0.57		80.1	15.1	3.9	0.9
지역	제주시	302(47.6)	1.25	0.57	2.653	81.8	12.6	5.0	0.7
	읍·면	332(53.4)	1.23	0.53		81.9	14.5	2.7	0.9
부모	부모 유	564(89.0)	1.24	0.55	3.707	81.9	13.3	4.1	0.7
	부만 유	19(2.0)	1.21	0.42		78.9	21.1	0.0	0.0
	모만 유	44(6.9)	1.25	0.62		81.8	13.6	2.3	2.3
	기 타	7(1.1)	1.14	0.38		85.7	14.3	0.0	0.0
조부모	조부모 유	132(20.8)	1.22	0.56	4.212	83.3	12.9	2.3	1.5
	조부만 유	18(2.8)	1.11	0.32		88.9	11.1	0.0	0.0
	조모만 유	304(48.0)	1.26	0.57		80.6	13.8	4.9	0.7
	기 타	180(28.4)	1.22	0.52		82.2	13.9	3.3	0.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배경 변인별로는 부분적으로 미미하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후의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 結論: 要約과 提言

본 연구는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효의식을 조사하여 제주도 효 교육 증진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뜻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토대로 전통 효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제주 선인들의 효 사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적인 반응 결과를 백분율로 파악하고 5개의 배경변인별로 χ^2 검증을 통해 유의도를 밝혀 보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나타난 전통적인 8가지 효 요소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보고, 조사결과 나타났던 문제점과 또한 그 해결 방법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順從의 효의식에서는 남·여 모두가 부모님의 명령에는 그 事理如何를 막론하고 무조건 모든 것에 복종하기 보다는 일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순종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保身의 효를 易地思之 입장에서 부모님 뇌사시 장기기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고려해 보겠다',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기증하겠다', '무조건 기증하겠다'가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시대가 바뀌면서 현실 상황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탈 유교적 생각인데,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奉養의 효의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시와 결혼후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효에 대해 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신의 자식이 동시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자식보다 우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忠諫의 효의식에 대한 물음에는 70%이상이 부모님 잘못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직언하겠다고 하고 있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자식이 감히 부모에게 직언하는 것은 불효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던 때와는 다르게 전통 효의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養志의 효의식 조사에서는 56%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전통 사회와 같이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효의식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여섯째, 恭敬의 효의식은 낮은 편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좋은 직장을 우선(61%)으로 하고, 부모님 모시(17%)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입신양명에 대한 효보다 우리 전통 공경의 효를 더 중시했음에 비교할 때 많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養護의 효의식은 남·여 모두 5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물질주의 사상이 들어옴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식이 상실되어 간다고 기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여덟째, 死後의 효의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묘지도 좋은 곳을 찾겠다고 했고, 제사도 풍성하게 지내겠다고 했으나, 가정 의례 준칙에 따라 제사를 모시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절 연휴때 관광지에서 차례 지내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 전통 효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아울러 별초 및 성묘에 대한 효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이 전통 효의식을 8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해본 결과 保身, 奉養, 忠諫, 養護, 死後의 5가지 효의식은 높고, 順從, 養志, 恭敬의 3가지 효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전통 효의식은 아직까지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명경시와 패륜아적인 행동들이 도를 더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保身, 奉養, 忠諫, 養護의 효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계속 보전 유지되어야 하겠다.

또한 死後의 전통 효의식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장소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엄숙하고 정성껏 조상을 추모 해야될 제례 의식이 遊興 관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므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묘지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명당 자리에 조상을 모시겠다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지양해야 겠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와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어렵기 때문

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장 후 15년 뒤에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順從, 養志, 恭敬의 전통 효의식의 반응이 낮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가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전대로의 맹종적이고 순종적인 전통 효를 요구할 수만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변화되고 있는 현대 생활양식에 맞게 부모님들의 의식 변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교육적인 의미에서 정리해 보면, 현재의 학생들은 효에 대한 보수적 관념에서 개방적 관념으로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또한 건전한 사고 방식과 전통적인 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 사조의 변천으로 인하여 생기는 효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既成 제도와 문화에 반항하는 청년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일방적인 효를 강요하기에 앞서 “父慈子孝”, “父愛子敬”²⁷⁾의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효를 받아들여서 교육을 하되, 전통 윤리를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적 합리적으로 계승하려는 각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의 첫째 길이라는 것은 가정 교육이 근원이 됨을 다시 한 번 상기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효 교육의 시급한 문제점은 전통적 효를 계승하되 어디까지나 오늘의 시대 감각에 맞게 효개념을 정립하여 효의 실행 방법면을 재정립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의 효 교육이다. 인간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특히 가정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중요성 인식이다. 그 중 하나가 핵가족으로 인한 자녀들의 과보호, 무관심, 부모 이혼, 문제 부모 등의 병리 현상이 효의식을 퇴색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에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가정이 살아 있는 효 교육의 장이 되려면, 효도를 실천하며 가르치는 부모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가정을 대화의 장으로 조성하는 일이며, 신의 있고 성실한 부모상을 언행을 통해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어버이끼리 夫婦禮敬이 존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며, 자식을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서 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의 조성 에 힘써야 할 것이다.

27) 인천시 남부교육청(1986), “충효 예절교육”, 경기교육신보, p. 12.

둘째, 학교에서의 효 교육이다. 朝令暮改식의 교육정책, 열악한 교육환경, 전인 교육을 외면한 입시용 지식교육,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위주, 입시중심의 교육풍조에서 인간중심 교육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표준적 습성을 형성시켜 주는 일이다. 그리고 효 주제를 전 교과에 고루 반영하고 과외 씨클활동 및 행사 교육에 있어서도 효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

셋째, 사회에서의 효 교육이다. 지금 사회는 청소년 비행의 온상화 되어가고 있다. 사회 연대감에서의 단절, 고립과 소외감에서 방황하는 현상 속에서 범죄 행위 등은 늘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매우 흉포화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출세주의, 이기주의, 여과 되지 않은 광고 및 대중매체의 범람 등이 사회 불안 요소로 청소년 비행은 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환경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 성인들 모두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사회는 부모 대행의 교육 기능이어야 하고, 성인 스스로가 모든 청소년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선도에 앞장서야겠다. 특히 매스컴은 건전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적극 계도해 나가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지식 교육보다는 인성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 인성 교육을 위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영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효 요소와 인식이 부족한 효 요소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잘 조화된 교육만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 金得梔(1984), 『한국고대 도덕의 연구』, 大地文化社.
金星元(1986), 『新完譯 擊蒙要訣』, 明文堂.
金瑩洙(1984), 『禮記』, 韓國教育出版公社.
김종권(1986), 『명심보감 요해』, 명문당.
朴炳大(1994), 『小學』, 一信書籍出版社.
徐三英(1977), 『忠孝』, 육군인쇄공창.
윤성범(1994), 『孝란 무엇인가』, 삼일서적.
李德熙(1995), 『孝行錄』, 譜典出版社.
李民樹(1985), 『論語解說』, 一潮閣.
이병호(1995), 『도덕전서』, 성일문화사.
차주환(1994), 『孟子』, 범우사.
黃秉國(1990), 『孝經』, 惠園出版社.

〈논 문〉

- 姜錫奉(1994), “전통적 孝요소에 의한 효의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근(1977), “부산시내 초·중등학생의 효의식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유혁(1977), “효의본질” 『충효사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김정배(1986), “삼무정신 지도요소 추출 및 교과관련지도,” 『삼무정신 교육 자료집』, 제주도 교육연구원.
양희설(1993), “효사상의 현대적의의와 교육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기타 문헌〉

- 북제주군 공보실 (1982), 『내고장 전통문화』, 일신옵셋인쇄사.
인천시 남부교육청(1986) “충효 예절교육,” 경기교육신보.
장백일(1996), “군인의 뿌리는 孝”, 『국방일보(일일칼럼1152)』, 1996년 6월5일.
제주도 교육연구원(1996), 『향토사 교육자료95-12』, 태명인쇄사.
————— (1988), 『삼무정신 지역화 교수, 학습자료』, 일신옵셋인쇄사.
————— (1985), “사회과 향토교육자료,” 『중학교용』, 춘추문화사.
제주도 교육위원회(1985), “삼무의 얼,” 『교육자료』, 태화인쇄사.
제주도 문화공보실(1984), 『제주 충효열지』, 일신옵셋인쇄사.

<Abstract>

A Study on Cheju-do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Traditional Filial Piety(孝)*

Im Jung-bum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Hang-won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promotion of Cheju-do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孝). To do this, along with the question survey about 634 students'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there was the reference not only to precedent studies about filial piety in Korea, but also to Cheju-do ancestors' cases of filial piety. And all data were calculated by percentages and x^2 -test to clarify the differences between 5 variables.

The following are 8 kinds of traditional filial piety represented by this study.

The first is the filial piety of submission, in which all of the students who were questioned were revealed not to entirely do what they were told to do.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The second is the filial piety of keeping their precious bodies healthy. They showed the positive response (over 70%) to questionnaires as to whether they are willing to donate their father or mother's parts of bodily organs after falling into their death of brain.

The third is the filial piety of faithful support, wherein they answered in the positive (over 70%) whether they could reside together with their parents in the situation of financial difficulties and after their marriage. Also they showed that when both their children and parents are in emergencies, parents would take precedence of children.

The fourth is filial piety of outspoken advice. The advice to parents, which was considered lack of filial piety in the past, reveals that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greatly changed toward the positive direction.

The fifth is filial piety of satisfying parents' expectation and supporting their upright conduct and, in case of which 56 percent of the students showed the negative response in their questionnaires. The percentage implies that children have a stronger tendency to act according to their own judgment.

The sixth is filial piety of reverence. As a result of the question survey, reverence for parents was unveiled to be less important than their own success in life.

The seventh is filial piety of heart-felt care. It was disclosed through the survey that when parents are taken ill, 80 percent of the students have the determination to care for parents with their whole heart.

The eighth is filial piety after parents passing away. They answered that they were willing to bury dead parents in good grave site, to hold a memorial service for parents with sincerity and to tidy up

parents' grave every year. More than 50 percent of the responders have never thought of observing a worship service for their own ancestors at a hotel around a sightseeing place during the period of New Year's or Full Moon holidays.

In sum, the filial piety of faithful support, outspoken advice, heart-felt care, post-death, and that of keeping healthy our precious body, received high support from responders, while the filial piety of submission, reverence, and that of satisfying parents' expectation and supporting their upright conduct attracted small interest from respondents. In general, from the question survey, it was revealed that most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still had deep-seated consciousness of traditional filial piety.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students' idea of filial piety is changing from conservative to progressive. And they showed the tendency to gladly accept the sound ways of thought and traditional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Therefore adults will have to try to help students inherit filial piety in the practical way, not to force them to acquire it.

I would like to give some suggestions to do this.

First, there must be given education on filial piety at home. Today the home should be a field of convers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parents should practice exemplary filial piety in order that it can become a place of educating filial piety.

Second, there must be held education on filial piety in school. School education in Korea ought to be changed from cramming students for exams to emphasizing humanity. In addition, schools must try to make students establish basic habits necessary for everyday lives, and to reinforce the education on filial piety in the field of every subject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cultural events.

Third, there must be given education on filial piety in community.

Every background in community should be a field of educating filial piety, and every adults should be teachers of filial piety. Especially mass media must take the lead in spreading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by means of instructive programs on filial piety.

The bottom line is that school education must put more emphasis upon education for humanity than education for knowledge, and that school, home, and community should be the very field of teaching filial piety.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생활태도와 효에 관한 고등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1부(생활태도)와 2부(효에 대한 생각)로 나뉘며, 설문에 응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되는 곳에 √표를 하시면 됩니다.

본 설문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학업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임정범 드림

1. 성 별 : ① 남 () ② 여 ()
2. 학교 계열 : ① 인문교 () ② 실업교 ()
3. 학교 소재지 : ① 제주시 () ② 읍·면(서귀포 포함) ()
4. 부모 유무 : ① 아버지·어머니 있음 () ② 아버지만 있음 ()
③ 어머니만 있음 () ④ 기 타 ()
5. 조부모 유무 : ① 할아버지·할머니 있음 () ② 할아버지만 있음 ()
③ 할머니만 있음 () ④ 할아버지·할머니 없음 ()

제 1 부 : 生前의 효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

6. 자신이 정한 결혼 상대자를 부모님이 반대하여, 부모님이 직접 결혼 상대자를 정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겠습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조금 찬성한다.()
③ 조금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7. 경제적으로 극히 빈곤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 처지가 안되었다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무료 양로원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도리라고 생각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조금 반대한다.()
- ③ 조금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8. 자식은 죽으면 다시 낳아 기를 수 있으나, 부모는 돌아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조금 찬성한다.()
- ③ 조금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9. 예를 들어, 나의 장래 희망은 선생님인데 부모님께서도 내가 하기 싫은 의사가 되라고 하신다면, 부모님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조금 찬성한다.()
- ③ 조금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10. 자신이 결혼 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조금 찬성한다.()
- ③ 조금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11.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점이 있다면, 큰 잘못은 물론 작은 잘못이라도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조금 찬성한다.()
- ③ 조금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12. 만일 부모와 자신의 자식이 동시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 ① 반드시 부모부터 구하겠다. ()
- ② 가능하면 부모부터 구하겠다. ()
- ③ 가능하면 자식부터 구하겠다. ()
- ④ 반드시 자식부터 구하겠다. ()

13.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 조건이 제주도보다 서울이 낫다고 판단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 제주도로 내려 오겠다. ()
- ②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 가겠다. ()
- ③ 직장은 서울에 두고 가끔 부모님을 뵈러 오겠다. ()

- ④ 부모님과과는 관계없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겠다. ()
14. 부모님이 병환 중일 때, 친구와 미리 약속된 여행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부모님이 병환 중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므로 무조건 여행을 포기하겠다. ()
- ② 병환의 정도에 따라 여행을 가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
- ③ 친구의 의견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겠다. ()
- ④ 약속이 중요하므로 무조건 여행을 가겠다. ()
15. 휴일에 부모님이 밀감밭에서 힘든 과수원 일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 놀러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당연히 부모님을 돕겠다. ()
- ②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 ()
- ③ 약간 일을 돕는 척 하다가 놀러 가겠다. ()
- ④ 무조건 놀러 가겠다. ()

제 2 부 : 死後의 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

16.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묘지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풍수 지리에 따라 개인 못자리를 찾아 정성껏 모시겠다. ()
- ② 가족 공동 묘지를 만들어 모시겠다. ()
- ③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겠다. ()
- ④ 화장해서 그 재를 바다에 뿌리겠다. ()
17.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에 대한 제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 ① 정성을 다하여 풍성하게 지내겠다. ()
- ② 부족함이 있더라도 가정의례 준칙을 따르겠다. ()
- ③ 생활 형편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되는데로 지내겠다. ()
- ④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
18. 요즘 제주를 찾는 관광객 중에는 명절 연휴때 여행을 즐기며 호텔측에서 판매하는 차례상으로 제를 올리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이해가 안가는 풍습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 ② 조상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
- ③ 차례를 지낸다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므로 어떤 장소이든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 ④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19. 부모님의 묘에 대한 벌초와 성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 ① 부모님이 보고 싶을때는 언제든지(1년에 몇번이라도) 찾아 가서 묘를 돌봐야 한다. ()
- ② 추석 명절 때만 묘를 찾아 벌초와 성묘를 하면 된다. ()
- ③ 매년마다 꼭 벌초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바쁠 때는 한 해 정도 걸러도 된다. ()
- ④ 묘를 꼭 찾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20. 만약 부모님이 뇌사 상태에 있다면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부모님의 장기를 기증 하겠습니까?

- ① 고려해 볼 가치도 없는 일이므로 절대로 안하겠다. ()
- ② 고려 해 보겠다. ()
- ③ 가족들의 동의한다면 기증하겠다. ()
- ④ 어차피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므로 무조건 장기를 기증하겠다. ()



※ 본 설문에 성심 성의껏 응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